



복음뉴스(발행인 김동욱 목사) 창간 3주년 감사 예배와 기념식을 2일 오후 5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140여명이 참석하여 복음뉴스의 앞날을 축복했다.

복음뉴스 3주년 감사예배 · 기념식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뉴스(발행인 김동욱 목사) 창간 3주년 감사 예배와 기념식을 2일 오후 5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개최했다.

발행인 김동욱 목사는 순서지에 쓴 인사말에서 “가장 늦게 시작했으니,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하고,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 어느 누구에게도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해서는 안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움지 않은 일과 타협해서는 안된다.”고 3년 전 창간 당시 다짐들을 회고했다.

김 목사는 “지난 3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뛰게 하셨다. 어떤 교회나 단체, 개인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게 하셨다. 움지 않은 일에 대하여는 단호히 아니라고 쓰게 하셨다. 제가 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심히 될 수 있는 열정과 건강을 주셨다.”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복음뉴스를 창간하신 분도, 운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복음뉴스를 창간케 하신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김 목사는 하나님과 독자들에게 “첫째, 공정하고 당당하게, 둘째 기사와 논평의 신뢰도가 가장 높게, 셋째 정직한 기사, 넷째, 아닌 것은 아니라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다섯째, 바른 용어, 바른 단어 사용을 위해 계몽하는 복음뉴스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1부 감사예배는 남일현 목사(든든한교회)의 인도와 이미리 사모의 반주로 진행되었다.

박종윤 목사(우리사랑의교회)가 송금희 전도사, 강해명 전도사, 김복순 전도사와 함께 인도한 경배와 찬양, 예배로 부름, 찬송 515장, 주효식 목사(뉴욕정원교회)의 기도, 송윤섭 장로(뉴욕장로연합회장)의 성경 봉독, 정한나 집사(새언약교회)의 반주에 맞춘 김성욱 집사(새언약교회)의 특송, 이종식 목사(메이사이드장로교회)



뉴욕코로나하프연주단의 축하 연주

의 설교, 찬송 50장을 함께 부르며 드린 헌금, 하정민 목사(햇불선교교회)의 봉헌 기도, 오영아 집사(KCBN 편성부장)의 광고, 박효성 원로목사(뉴욕한인제일교회)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효식 목사는 “거짓된 탐욕과 소식들로 흥수를 이루어 고통 받는 이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복음의 본질과 가치를 드러내어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살리는 복음뉴스가 되기를 기도”했다.

이종식 목사는 이사야 6장 6-13절을 본문으로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종식 목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타락한 유대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소명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를 언급하며 “소명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2부 기념식은 송호민 목사(한성개혁교회)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관호 목사(뉴욕만나교회)의 환영사, 유원정 편집국장(미주크리스천신문)의 ‘복음뉴스를 말한다’, 한준희 목사(뉴욕성원장로교회)의 ‘복음뉴스에 바란다’, 뉴욕교협 회장 양민석 목사(뉴저지교협 전 회장 이병준 목사(한길교회)의 축사, 뉴욕코로나하프연주단의 축하 연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김주현 목사(세움교회)가 인도한 ‘복음뉴스를 위한

기도’, 복음뉴스 발행인 김동욱 목사의 인사말, 이준성 목사(뉴욕목사회장)의 폐회 및 식사 기도로 진행됐다.

뉴욕교협 회장 양민석 목사는 “복음뉴스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트랙에서 내려와 복음뉴스만의 트랙에서 활동하고 있다. 복음뉴스가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가기에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란다. 복음뉴스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경쟁심에 감사한다. 거룩한 욕심은 도약과 발전을 가져다 준다. 품위를 지키게 하고 권위를 갖게 한다. 손을 벌리지 않는데도 손을 벌려 돕는 손길들이 많아진 것에 감사한다. 까마귀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축하를 했다.

사회자 송호민 목사가 순서에 없는 깜짝 순서를 진행했다. 참석자들 모두를 일어나게 해 김동욱 목사를 향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부르게 했다. 김 목사는 눈을 꼬옥 감은 채 참석자들이 부르는 찬양을 들으며, 지난 3년간 복음뉴스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많았다. 저녁 식사를 한 참석자들의 수만 107명이었다.

행사를 마친 후에 식사를 하지 않고 귀가한 사람들, 행사 진행 중에 돌아간 사람들을 감안하면 140명 정도가 참석했다.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